**지난 3~4월의 재택근무를 돌아보며**

22.04.26 (화) 성영훈

올해 3월~4월까지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캠퍼스에서 형제들과 함께하며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
참 행복하고, 풍성한 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. 매일의 Quiet Time sharing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. 매일 아침에 교제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,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‘죽음을 목표로 사신 삶’, Time Alone With God 시간을 통해 사람들을 도와 주신 주님… 긍휼이 넘치시고, 때에 맞게 사람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가신 주님을 배우며 저 자신도,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동기를 매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삶에 powerful한 영향을 주었다 생각이 듭니다.

지난 기간 동안에 유범이와 진용이, 영후를 교제 가운데 형제들과 함께 도와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,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, 장차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가 됩니다.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, 경계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것, 과정 가운데 풍성한 기도와 말씀으로 도와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

또 (사58:10-12)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.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과, 중간에 목이 아팠으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신 것이나,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

꽃이 피고, 벌써 졌습니다. 빠르면 일주일만에 지는 꽃들도 보게 됩니다.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재택근무를 할 때가 있으면 다시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 때가 있고, 여유로울 때가 있으면 다시 바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난 황금과 같은 재택근무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회사를 가게 되는데, 나도 꽃처럼 한 때는 좋았다가 다시 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..

(렘17:8) “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”

지난 기간 주님 안에서, 교제 안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사 사람들과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